

문화광장



김 연 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현재 명화로 불리는 작품 가운데 의외로 많은 작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게 된다. 비평가나 관람객에게 비난받았던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작품의 선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풀밭 위의 점심’과 ‘올랭피아’는 발표 당시 음란하다며 사람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았다. 신화 속 여신을 이상화해 아름다운 누드화로 그리던 시절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의 나체가 담긴 화폭은 관람객에게 전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고, 심지어

거부된 작품들

의심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두 작품은 현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과 루브르 미술관에 각각 소장돼 있다. 오귀스트 로댕의 ‘발자크’ 기념상은 프랑스 문학협회의 의뢰로 제작됐지만, 문학협회가 작품 인수를 거부했다. 로댕은 4년 동안 그의 편지, 작품, 초상화 등을 연구해 기념상을 만들었지만, 로댕은 발자크를 천을 두른 모습에 얼굴을 발자크라고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분명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협회 사람들은 협회 창시자인 오노레 드 발자크를 당시 제작되던 기념상들처럼 전형화한 형식을 갖춘 위대한 모습으로 재현한 기념상을 원했다.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의 작품은 협회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비평가에게도 강하게 비난을 받았다. 로댕이 제작비를 돌려주고 받아온 이 작품이 청동으로

제작되어 파리 시내에 놓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치나 사회 비판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스 하케는 마네의 작품 ‘아스파라거스 다발’이 소장돼온 경로를 추적한 작품 ‘마네 프로젝트’를 제작했다. 열 개의 패널로 된 이 작품은 ‘아스파라거스 다발’의 모두 유대인이었던 소장자들의 이력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 작품은 발라프-리하르트 미술관의 150주년 개관기념전 ‘프로젝트 74’에 출품하려고 했으나, 큐레이터에게 동의를 얻은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경영진에 의해 거부당했다. ‘아스파라거스 다발’을 발라프-리하르트 미술관 기증한 미술관 후원회의 회장이자, 전 작품 소장자인 헤르만 압스가 나치에 협력했던 사실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 작품은 파울 마엔츠 갤러리에서 전시됐다.

작품이 비난받고 거부당한 사례는 알려진 것도 많지만, 은폐된 경우에 비하면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났으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수많은 작품이 정부에 의해 검열되거나 대중에게 외면당했다. 군사정권 시절 신학철의 ‘모내기’가 압수됐듯, 최근에도 미술관에서는 작품들이 내려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4·3 미술이 탄압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작가의 작품이 분명한 이유로 모든 채 전시 개막식에서 가려지는 일이 있었다. 예술 작품은 앞으로 계속 논쟁의 가운데 서게 될 것이며, 때로는 찢기고, 불태워지고, 짓밟힐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 비난받고 거부되는 이 작품들이 후대에는 사랑받고 인정받을 작품이기 때문이다.

사설

발행·유료부수 1위, 대표신문 역할 다할 것

한라일보가 4년 연속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독자를 확보한 신문사로 인증받았습니다. 또 발행부수도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모두 동시에 1위에 올랐습니다.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신문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됐습니다. 한국ABC협회는 지난 6일 인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2018년도분) 일간신문 172개사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인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일간지 중에서 발행부수는 한라일보가 2만1727부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료부수 역시 1만3186로 제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라일보 발행부수는 2017년 1만9804부, 2018년 2만185부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료부수도 2017년 1만2111부에서 1075부가 늘면서 제주 대표신문으로 그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전국

적으로 신문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라일보는 성장을 거듭해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라일보가 이룬 성과는 단지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1위만이 아닙니다. 2005년 도내 일간지로는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됐습니다. 첫째 당시 한라일보는 경남도민일보·국제신문·부산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전국 5대 지방일간지로 뽑혔습니다. 올해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 한라일보는 전국 지방신문 신뢰도 조사에서도 제주에서 가장 신뢰받는 신문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과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의 결과여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라일보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비판·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총량제 도민 공감대 확보가 먼저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압력으로부터 제주의 중요한 환경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하려는 제도입니다. 보전지역의 총량을 설정, 개발 등으로 총량이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복원 혹은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환경 수용성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년전부터 논의돼온 사안입니다. 최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내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려 관리방안과 보전지역 범위 등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총량 산정의 문제와 사유지 규제 및 재산권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 사유지 매수제도와 대체지 비축제도, 편법개발과 보전지역 문

제, 보존비용 부담 등이 제시됐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제도 도입 시 제주도 면적의 42%를 보전지역으로 관리한다는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그럴 경우 상당 면적의 사유지에 대한 제약을 불려올 수 있습니다. 도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도민 공감대 확보가 제도 도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제주도가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대다수 도민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로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점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선불리 밀어붙이기보다는 도민 공감대 확보를 비롯 사전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준비와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도민 우려와 피해가 없도록 정교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마당

수소사회로 나아가는 길



김 민 기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했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일으켰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감소했고 기상이변이 증가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O²를 줄여야 하는데, 국제에너지기구와 환경부 등 여러 기관에서 CO²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석연료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소에너지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지만 수소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수소 화합물에서 수소를 분리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수소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으로는 부생수소, 천연가

스 개질, 물 전기분해(수전해) 방식이 있다. 수소에너지는 단기적으로 낮은 경제성을 가지고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지점에 와있으므로 재생에너지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미래에 기술이 발전해 물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에너지를 낮은 가격에 얻게 된다면 완전히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수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정부는 연료전지 자동차 산업과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해 유인책을 제공하고 수소에너지 발전을 막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또, 수소경제법을 제정하여 민간의 참여와 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제활동 지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블록체인 기술 통해 앞서나갈 수 있다”

원 지사 ‘블록체인 사랑’ 여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블록체인’에 대한 사랑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
원 지사는 9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인 제주’에 참석해 행사장을 돌며, 기술 실현을 직접 체험하고 참가자들을 격려.
이날 원 지사는 “제조업 등이 취약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블록체인과 같은 핵심기술을 통해 오히려 앞서나갈 수 있다”고 강조.

송은범기자

제주시, 4대 폭력 예방교육

○…제주시가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 의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해 눈길.
시는 지난 6일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문지윤 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일상에 존재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 의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
제주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등 현실대를 파악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했고 직원 전다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들을 발표하며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개.

고대로그자

농협 직거래 장터 장사진

○…제주농협과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제주지부가 9일 농협주차장에서 ‘2019 도·농상생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방문객이 장사진을 이루며 진풍경을 연출.
11월과 3일간 이뤄지는 직거래 장터에는 제주산 월동무는 물론 간마늘, 김장배추, 고춧가루, 돼지고기, 감귤 등이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판매되며 인기.
농협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가 오전 중에 많이 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며 “판매제품의 품질이 좋아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자평. 백귀탁기자

부 고

김계월 아버지 경주김공 군보(해병 4기, 아오스딩, 향년 88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8일 19시 27분에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2월 10일(화)
- ▶장례미사: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9시
- ▶발인장소: 한림성당
- ▶장 지: 천주교 공동묘지 황사평 (양지공원경유)

부인 김순이(한나)
딸 김계월(혜리야) 사위 고복수
 순월(영카타) 김경택(태도)
 선월(영다나) 이호빈(스타캐츠)
외손녀 고영준(요한) 외손녀 이해경
 고일준(배오로) 김진아
 김근초(아롱로)
외손녀 김재현(백만) 외손녀 김태성(마카벨)
 김정현(랜드루다) 김민호

※ 연락처 : 김계월(010-8889-6544) 고복수(010-4587-6544)
이상의 010-2853-3383 김경택(010-2698-3338)
김선월(010-2709-3383) 이호빈(010-6789-2194)

부 고

이상엽(창성주유소) 아버지 전주 이공 군형(창성주유소 대표·향년 83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9일 03시 32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2월 10일(화)
- ▶발인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8시
-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3분향실
- ▶장 지: 봉성리 선영

아 들 이상엽 머느리 강문희
 상철
 상익 강경화
딸 이영림 사 위 이동식
 연희 배희경
동 생 이길형

※ 연락처 : 이상엽 010-2018-5220
이상철 010-3696-6320
이상의 010-8661-0072
강문희 010-2016-5220
강경화 010-3690-6866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 로타리클럽
제주 로타리클럽 이사 전주 이공 군형(창성주유소 대표·향년 83세)님께서 서기 2019년 12월 9일 03시 32분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2월 10일(화)
- ▶발인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8시
-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3분향실
- ▶장 지: 봉성리 선영

아 들 이상엽 머느리 강문희
 상철
 상익 강경화
딸 이영림 사 위 이동식
 연희 배희경

※ 연락처 : 회장 홍성호 010-8274-1234
총무 김재훈 010-9487-8009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 로타리클럽
회장 홍성호 회회원들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김용수(1949. 02. 04생)
*최 후 주 소 : 제주시 일주동로 94-1 세동 102호 (화북일동 광명라크빌라)
상기자는 2019년 7월 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9년 12월 5일 제주지방법원 2019-단102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서귀포시 대정로34, 104동 402호 (강정동, 제주강정유수환배출시스템소)인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민, 김경, 김경임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송덕의(1954. 01. 18생)
*최 후 주 소 : 고향시 일산동구 광명천로433번길 4-8, 110동 201호(של문동, 플라리스)
상기자는 2019년 9월 1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지방법원 2019-단138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권노침10길 34(노침동)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송은범

자본감소(임의유상소각)공고
당 회사는 2019년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일십사억원(₩ 1,400,000,000)을 금 일십억삼천만원(₩ 1,030,000,000)으로 발행주식 총수 140,000주를 103,000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감소주식 37,000주를 1주당 금 일만원(₩10,000)에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19년 12월 10일
주식회사 한라엔지니어링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49(동홍동) 대표이사 박성현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석성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월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